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jhlee8604@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B2C가 B2B 앞질러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GTS Rail, 자중해-북해 철송 서비스 개시
- Maersk, 스페인 콜드체인 물류 위한 친환경 철도 솔루션 제공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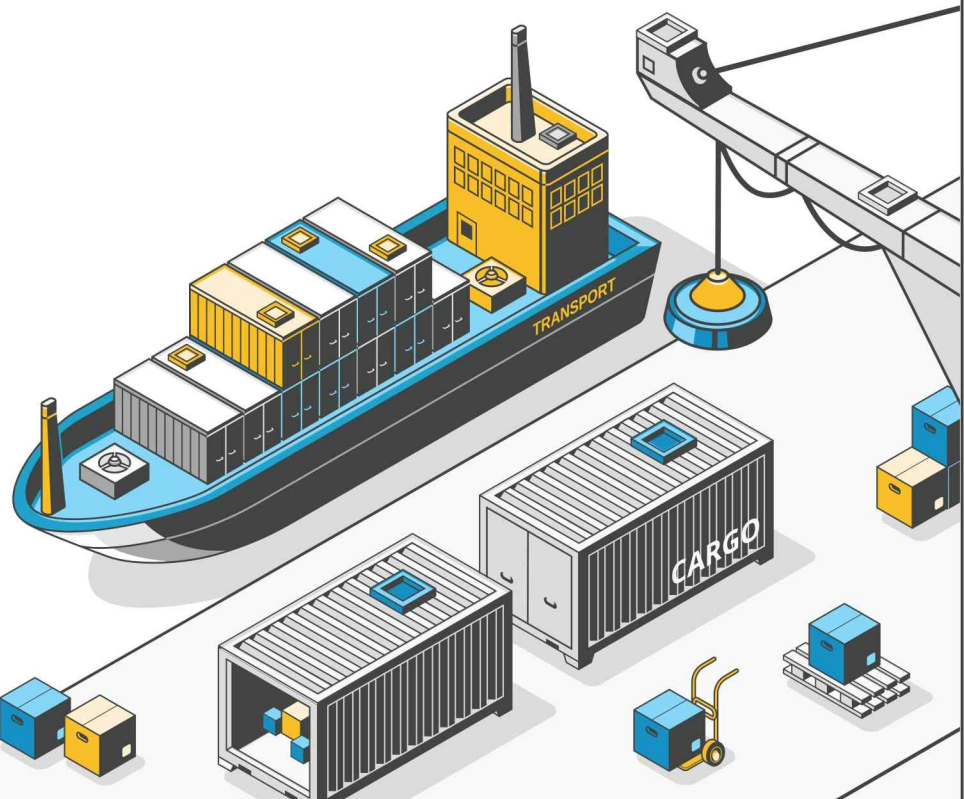
- 중-아세안 해륙복합운송 루트, 양 지역 핵심 물류루트로 성장

●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 컨선 결항 잇달아

● 공지사항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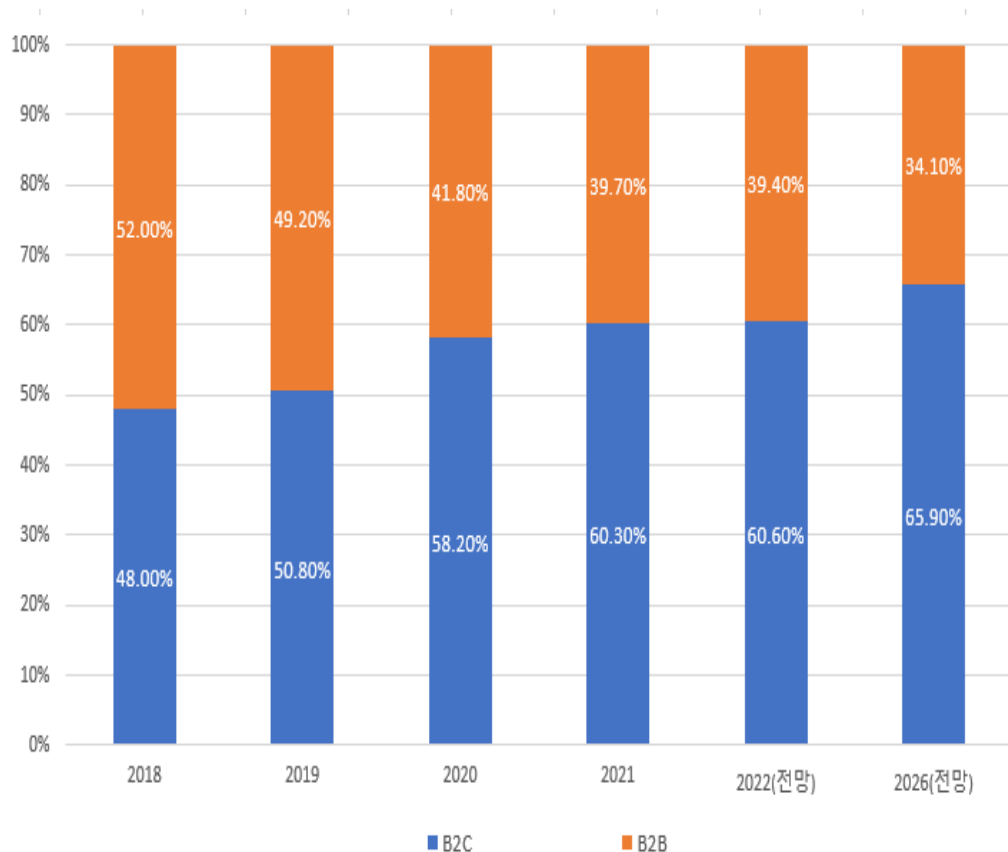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B2C가 B2B 앞질러

➤ 2019년 이후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점유율에서 B2C¹⁾ 시장이 B2B²⁾ 시장을 계속해서 앞섬

- Transport Intelligence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지난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규모는 약 4,621억 3,790만 유로로 이 중 B2C 시장이 2,785억 6,590만 유로로 전체 시장에서 약 60.3%를 차지함
- 이는 2019년 B2C 시장 규모가 1,848억 4,606만 유로로 전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규모(약 3,638억 7,020만 유로)에서 50.8%를 차지하며 B2B 시장(1,790억 2,414만 유로, 49.2%)을 앞선 이후 3년 연속 지속되고 있음
- 두 시장 간의 점유율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B2C 시장이 전체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에서 약 65.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B2B, B2C 점유율(2018-2021년, 2022년(전망), 2026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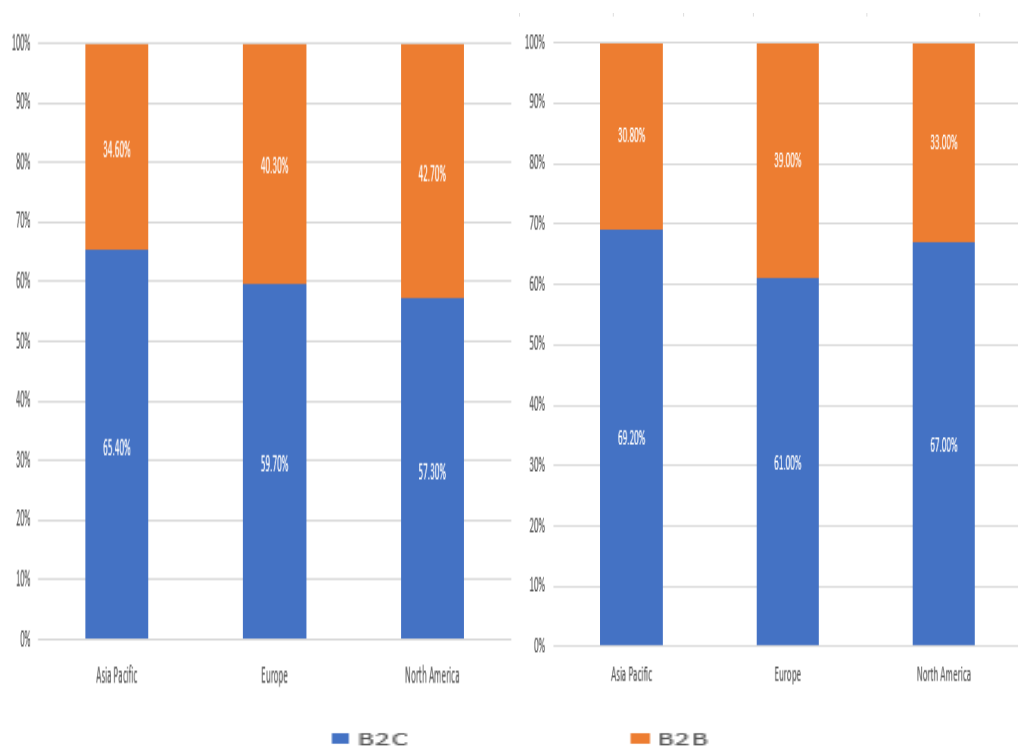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B2C Propels Express Market Growth*, 2022.

1) B2C : Business-to-Consumer
2) B2B : Business-to-Business

●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북미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유율 현황은 유사하게 나타남

- 지난해 위 세 지역의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에서 B2C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4%, 59.7%, 그리고 57.3%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26년 세 지역의 B2C 시장 점유율은 각각 69.2%, 61%, 그리고 67%로 B2B 시장과의 점유율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주요 지역별 글로벌 특송 및 소화물 시장 B2B, B2C 점유율(2021년, 2026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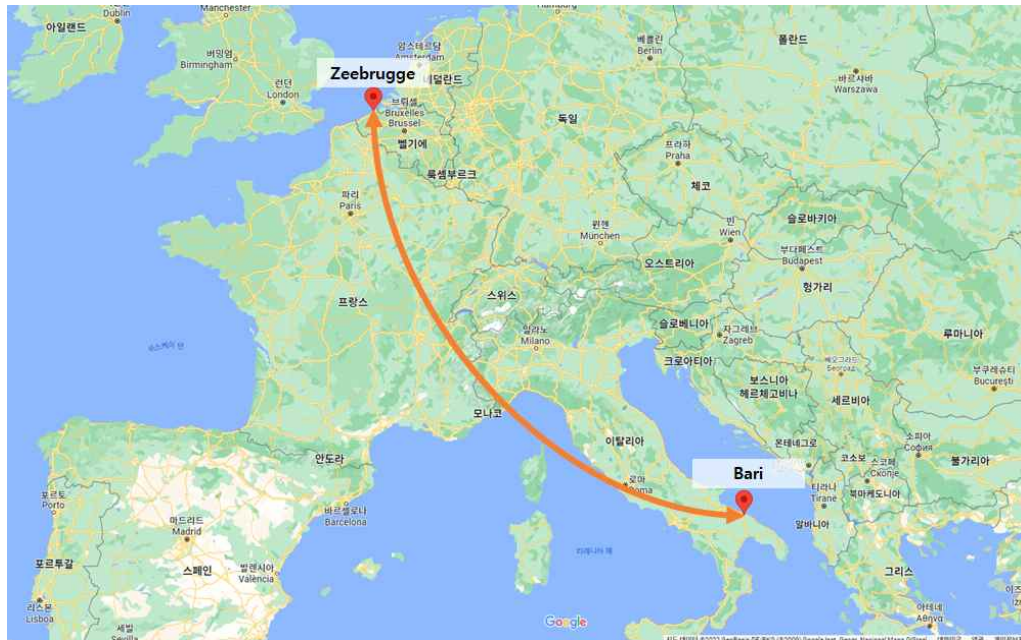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B2C Propels Express Market Growth*, 2022.

참고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B2C Propels Express Market Growth*, 2022.

GTS Rail, 지중해-북해 철송 서비스 개시

- GTS Rail이 유럽에서 가장 긴 복합 직행 철도 노선을 운항할 예정임
 - 10월 11일부터 이탈리아 남동부 해안의 Bari Lamasinata 기차역과 벨기에 북부의 Zeebrugge 항만 사이에 철도 서비스가 개시됨
 - 매주 1회씩 왕복 운항할 예정이며, 추후 12월부터는 매주 2회 더 추가해, 매주 총 13회 운항할 예정임
- 본 철도 서비스는 지중해와 북해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2SeasTrai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노선 길이 2,000Km에 운행시간은 약 48시간임
- GTS는 본 서비스의 주요 화물은 50%가 식자재이며, 나머지는 목재 및 플라스틱 산업의 자재라고 밝힘

2SeasTrain, Bari-Zeebrugge 간 서비스 개시



자료 : 구글맵을 바탕으로 KMI 작성

- Lineas도 이탈리아와 벨기에를 연결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Lineas는 이탈리아 Apulia와 벨기에 Antwerp를 연결하는 철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GTS의 2SeasTrain은 Lineas 서비스보다 운행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알려짐

Maersk, 스페인 콜드체인 물류 위한 친환경 철도 솔루션 제공

- Maersk가 스페인 콜드체인 물류를 위한 친환경 철도 솔루션을 제공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할 예정임**
 - Maersk는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온도에 민감한 화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가는 새로운 철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임
 - 스페인의 발렌시아 터미널(Valencia terminal)에서 영국 동부의 바킹 터미널(Barking terminal)로 매주 3회 출발할 예정임
 - 이러한 새로운 철도 솔루션은 스페인의 신선한 농산물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수송용량이 유연함
 - 또한,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돌아올 때도 비냉장 화물도 실을 예정임
- Maersk의 새로운 철도 솔루션은 스페인 과일 및 채소 수출 성수기에 맞추어 10월 말부터 정기 출항할 예정임**
 - Maersk는 9월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주 3회 시험 운행 후 스페인의 과일 및 채소 수출 성수기에 맞춰 10월에 정기 출항할 예정임
 - 스페인의 과일 및 채소 수출의 90% 이상이 북쪽인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독일, 스칸디나비아의 주요 시장으로 운송되며 매일 최대 1,400대의 트럭이 스페인 북부 국경을 통과함

Maersk 스페인 콜드체인 물류를 위한 친환경 철도 솔루션 제공



자료 : www.maersk.com, (검색일 : 2022.10.4.)

➤ 새로운 철도 솔루션을 통해 트럭 운전자 부족 및 도로 병목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Maersk 프랑스 지역 Diego Perdones Montero 전무이사는 “새로운 철도 솔루션은 스페인의 콜드체인 물류 고객이 직면한 트럭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제한적인 트럭 운송 용량, 도로 병목 현상으로 인한 도로 운송 품질 저하 등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함
- 또한, Diego Perdones Montero 전무이사는 “새로운 철도 솔루션은 저탄소 친환경 솔루션으로 트럭보다 CO2 배출량을 90% 이상 낮출 수 있으며, 향후 해운과 통합한 솔루션을 포함해 더 많은 노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함

중-아세안 해륙복합운송 루트, 양 지역 핵심 물류루트로 성장

- ▶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해상-육상 복합운송루트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아세안 교역의 핵심 물류루트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과 아세안의 핵심 물류루트는 중국 남서부 광시좡족 자치구의 친저우항에서 해상운송을 통해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남부지역으로 운송되며, 반대로 친저우항에서 하역 후 철송을 통해 중국 전역을 포함해 몽골 및 네팔까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중국 쿤밍에서 철송을 이용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 국가를 모두 연결할 수 있어 양국 핵심 운송루트로 자리잡고 있음
- ▶ 해상과 육상을 잇는 복합운송루트는 중국 서부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올해 1~8월까지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무역규모는 약 5,90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무역규모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는 해당 물류루트의 성장에 따라 서부 지역의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계해 무역규모를 더욱 늘려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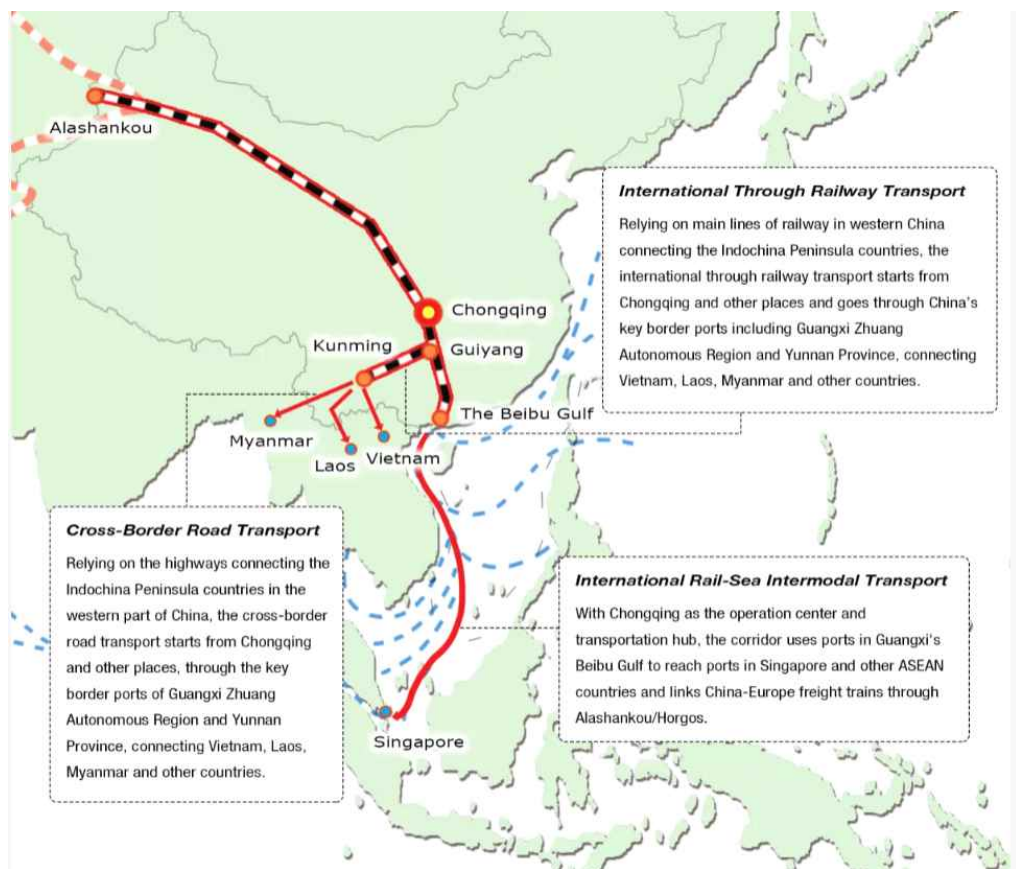
중국 광시 우저우 철도화물 센터



자료 : www.globaltimes.cn, (검색일 : 2022.10.4.)

- 동 해륙복합운송은 코로나19 및 물류대란 등에 따른 해상운임 급등으로 화물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아시아 지역의 핵심 물류 루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국영 철도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해륙복합운송을 통해 113개국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동 루트를 통해 아세안에서 중국 서부 지역까지 리드타임을 약 10~20일 단축 가능함
 -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해당 운송루트의 물동량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중국-아세안 해상-육상 복합운송루트



자료 : www.ichongqing.info, (검색일 : 2022.10.4.)

참고자료 : www.globaltimes.cn, (검색일 : 2022.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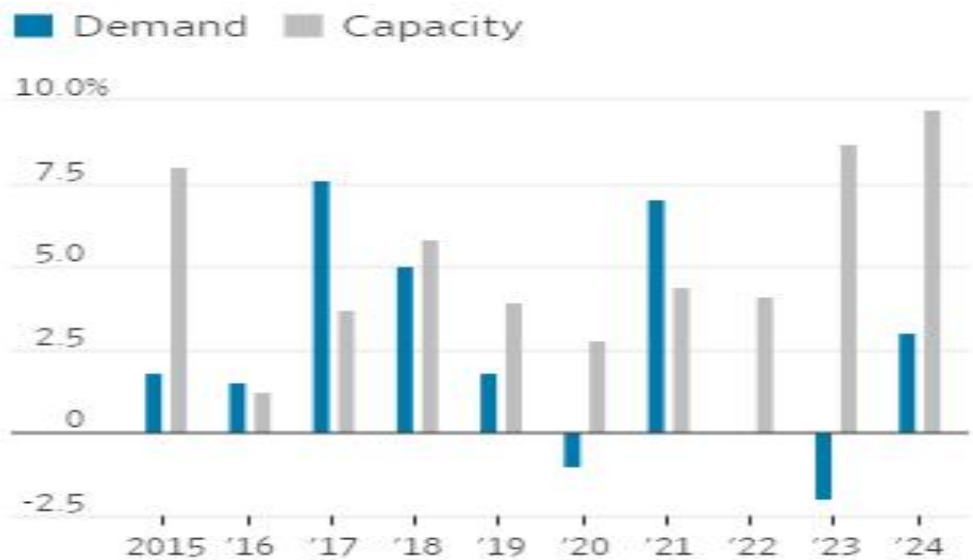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 컨선 결항 잇달아

- ▶ 지난주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10월 3일부터 2주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항 하려는 여러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이 취소됐음
- ▶ 일반적으로 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 선박은 연중 이맘때 주 2~4회 정도 결항이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2주 동안 61척의 운항이 중단됐음
 - 아시아발 미국 서안 행 40척, 동안 행 21척이 취소됐음
- ▶ 이번 10월에 발생한 운항 취소는 부족한 운송 공간으로 인해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운송 업체의 이익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던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급격한 반전임
 - 작년 10월 Walmart Inc. 및 Home Depot Inc. 와 같은 회사는 급증하는 수요 충족과 항만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자체 선박을 활용했었음
- ▶ 아시아-미국 항로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 항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Xeneta의 Peter Sand 수석 애널리스트는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10월 첫 주에만 3분의 1 정도 취소되고 2주째에는 절반이 결항할 것으로 전망했음
- ▶ Wall Street Journal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음
 -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공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무역 활동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여러 차례 하향 조정했음
 - 소비자 물가는 미국,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 ▶ 아울러 4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너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이 연초 14,500달러(2021년에는 19,000달러 이상)에서 현재 평균 3,900달러로 떨어져 전년 대비 약 75% 하락했음
- ▶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와의 주문을 취소하고 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운송업체는 급격히 줄어든 수요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
 - FedEx Corp.는 최근 운송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몇몇 운항스케줄을 취소하고 선박을 항만에 정박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 지난주 목요일 Nike Inc.는 북미에서만 전년 대비 65%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격인하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해상 컨테이너 선박 과잉 현상으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됨

- 발주 중인 새로운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능력은 향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더 많은 선박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상운임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영국의 대표적 해양 서비스 회사 Braemar PLC에 따르면 해상 컨테이너 적재능력은 올해 4% 증가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8.8%, 2024년에는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컨테이너 500만 개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 688척 있었으나 2020년 초부터 컨테이너 800만 개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 1,056척 주문됐음

연간 선박 수요와 적재능력 변화(annual change in ship demand and capacity)



자료 : WSJ, *Cargo Shipowners Cancel Sailings as Global Trade Flips From Backlogs to Empty Containers* 참조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